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V리그가 신음하고 있다. 이미 직격탄을 맞은 여자부는 20일까지 경기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남자부 경기마저 집단감염 사태로 연기됐다. 팀 내 감염자가 13명에 이른 대한항공의 16, 20일 경기가 순연됐다. 스포츠동아DB

## 대한항공 무려 13명 집단감염 남자배구도 오미크론에 '휘청'

선수 엔트리 조건 충족 못해 16·20일 경기 연기  
KOVO 심판도 7명이나 확진...V리그 최대 위기

남자배구마저 오미크론 변이에 독이 허물어지려고 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4일 오전 대한항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과 함께 16일 삼성화재, 20일 한국전력과 경기 연기를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13일 2명의 선수가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선수 10명과 코칭스태프 3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이에 대한항공의 5라운드 경기 연기가 결정됐다.

KOVO는 "연맹의 리그 정상운영 기준인 12명의 선수 엔트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16일, 20일 경기가 순연된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거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인 7일과 격리해제 후 3일의 주의권고기 한을 합한 10일을 적용한 결정이다. 순연된 경기 일정은 재편성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연맹은 추가 확진자 발생 방지를 위해 각 구단에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V리그 여자부는 현대건설(3명)을 시작으로 한국도로공사(9명), KGC인삼공사(7명), IBK기업은행(2명), 흥국생명(1명)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20일까지 경기가 중단된 가운데 남자부도 감염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4명의 스태프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진단검사에서도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카드는 주축선수 1명의 감염이 13일 확인됐다. 이후 진행된 전 선수단 PCR 검사에서 스태프 1명이 14일 추가로 확진됐고 재검사 1명, 대기 3명, 추가 검사 8명 등의 결과가 나왔다. 자칫 대한항공처럼 엔트리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집단감염이 나올 수 있었는데 다행히 2명을 제외하고 음성이 나왔다. 불행 중 다행이지만 3위 우리카드는 18일, 23일 4위 OK금융그룹과 중요한 2연전을 앞두고 있다. 주축선수가 빠진 채로 2경기를 치러야 한다.

이밖에 13일 천안에서 벌어진 현대캐피탈-OK금융그룹전에 참가했던 볼 리트리버들 중 2명도 자가진단에서 양성 반응을 받아 PCR 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경기 내내 마스크를 썼고, OK금융그룹 세트 파명어도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경기를 했다.

KB손해보험도 코칭스태프 중 한 명이 자가진단검사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즉시 PCR 검사를 진행했다. 14일 까지 감염이 확인된 선수는 여자부 22명, 남자부 11명인데 잠복기가 다르고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팀들도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선수들뿐 아니라 경기장의 다른 사람들도 감염시키고 있다. KOVO 심판들 중 4명의 감염자가 14일 추가로 나와 총 7명이 경기를 맡을 수 없게 됐다. 여자부 일정이 중단돼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자칫 심판이 모자라 일정이 무너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오미크론 변이가 애써 지켜오던 V리그의 일정에 차츰 큰 상처를 만드는 상황이 걱정스럽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 '2020년 신인왕' 세플러, 피닉스 오픈 3차 연장 접전 끝에 데뷔 첫 우승



PGA 투어 2020년 신인왕 출신인 미국의 스킷 세플러(미국)가 14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스크초데일의 TPC 스크초데일에서 열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 마지막 라운드 3차 연장에서 버디샷을 성공시키고 포효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세플러. 이번 우승으로 상금 147만6000달러(17억7000만 원)를 받았다. 피닉스 스크초데일(미 애리조나) | AP뉴시스

# 70전71기... '골프 해방구' 서 '무관 해방'

〈소음·음주 등이 허용되는 피닉스 오픈 지칭〉

4R 버디 8개·보기 4개로 공동 1위  
베테랑 캔틀레이와 혈투 끝에 정상

강성훈·김시우 8연타파 공동 26위  
오티즈 16번홀 홀인원 맥주캔 축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0년 신인왕' 스킷 세플러(미국)가 2년 만에 제 모습을 찾은 '2022년 골프 해방구'에서 감격적인 데뷔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세플러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스크초데일의 TPC 스크초데일(파72)에서 열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총상금 820만 달러·98억 4000만 원) 마지막 날 3차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패트릭 캔틀레이(미국)를 따돌

리고 우승상금 147만6000달러(17억7000만 원)를 품에 안았다.

캔틀레이와 함께 3라운드까지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3위 그룹을 형성했던 세플러는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4개를 적어내며 4타를 줄여 최종합계 16연타파 268타를 기록했다. 브룩스 켈카, 쟈더 쇼플리, 사히스 티갈라(이상 미국·15연타파) 등 공동 3위 3명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캔틀레이와 플레이오프에 들어갔다.

4라운드에서 블러코스터 행보를 보인 세플러와 달리 캔틀레이는 단 하나의 보기도 없이 버디만 4개를 적어내며 안정감을 주고, 더구나 세플러가 정규라운드 18번(파4) 홀에서 2m 버디 퍼트를 놓치며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터라 연장 무거운 투어 통산

6승의 베테랑 캔틀레이로 기운 뚫었다.

그러나 첫 우승을 향한 집념은 마침내 달콤한 열매를 맺었다. 18번 홀에서 계속된 1차 연장에서 캔틀레이의 2m 버디 퍼트가 살짝 비켜나가 한숨을 돌린 세플러는 2차 연장에서 어렵게 파를 지켜 승부를 이어간 뒤 3차 연장에서 기어코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캔틀레이를 따돌렸다. 2019~2020시즌 PGA 투어에 데뷔해 신인상을 수상했지만 그동안 준우승만 두 번 차지하는 등 지난 우승 감증을 느껴왔던 세플러는 자신의 71번째 대회 출전에서 기어코 정상을 밟고 포효했지만 시즌 첫 승에 도전했던 캔틀레이는 마지막 순간 아쉬움에 고개를 떨쳤다.

2~3라운드 연속 리더보드 최상단을 점령했던 신인 티갈라는 17번(파4) 홀타샷 실수가 발목을 잡았다. 디펜딩 챔

피언 켈카는 공동 3위에 오르며 이름값을 했고, 세계랭킹 1위 윤 람(스페인)은 함께 12연타파 공동 10위로 체면치레를 했다.

강성훈(35)과 김시우(27)는 함께 8연타파로 나란히 공동 26위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을 차지하고 올해 1라운드에서도 선두에 올랐던 이경훈(31)은 최종 공동 38위(5연타파 279타)에 머물렀다.

한편 카를로스 오티즈(멕시코)는 전날 샘 라이더(이탈리아)에 이어 시그니처 홀로 불리는 16번(파3) 홀에서 또 홀인원을 기록했다. 덕분에 코로나19를 딛고 2년 만에 3층 관람대를 꼭 채운 2만 갤러리들의 '맥주캔 축하 세리머니'가 이를 연속 펼쳐지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LA 램스 역전 터치다운 22년 만에 슈퍼볼 우승

23-20으로 신시내티 꺾고 통산 4승  
역전승 주역 쿼, 슈퍼볼 MVP 선정

LA 램스가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램스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에 있는 소피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6회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에서 신시내티 벵골스를 23-20으로 꺾었다. 이로써 램스는 통산 4번째 우승에 성공했다. 1945년과 1951년 NFL 정상에 올랐고, 슈퍼볼이 시작된 1970년 이후로는 2000년 우승이 마지막이었다. 22년만의 슈퍼볼 우승이다.

## '1승2패' 여자농구대표팀, 현재와 미래 확인

〈월드컵 최종예선〉

조 3위 월드컵 본선행 티켓 획득  
김단비·강이슬 등 베테랑은 물론  
젊은 선수들의 국제경쟁력 확인

여자농구대표팀은 14일(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국제농구연맹(FIBA) 여자농구월드컵 최종예선 A조 최종 3차전에서 호주에 61-79로 패했다. 1승



LA 램스 선수단이 14일(한국시간) 소피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6회 NFL 슈퍼볼에서 신시내티 벵골스를 23-20으로 따돌리고 22년 만에 정상을 탈환한 뒤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잉글우드(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램스는 경기 시작 8분38초 만에 쿼터백 매튜 스타포드의 패스를 받은 오닐 베컴 주니어의 터치다운과 이어진 엑스트라 포인트 획득으로 7점을 선취했다. 벵골스가 1쿼

터 종료 28초를 남기고 에반 맥피어슨의 29야드 필드골로 3점을 따라붙었지만, 램스는 2쿼터 2분9초 만에 쿼터 쿼의 터치다운으로 13-3까지 달아났다.

그러나 신시내티의 반격이 거셌다. 2쿼터 9분13초 티 히긴스의 터치다운과 엑스트라 포인트로 10-13까지 추격했다. 히긴스가 3쿼터에 쿼터백 조 버로우의 패스를 받아 다시 터치다운을 성공시키고 엑스트라 포인트까지 얻어 벵골스가 17-13으로 역전했다.

램스는 이후 필드골까지 허용해 13-20으로 뒤지며 패색이 짙어졌다. 하지만 3쿼터 말게이의 필드골(16-20)로 추격의 불씨를 당긴 뒤 경기 종료 1분25초를 남기고 대역전극을 만들었다. 스타포드와 쿼이 다시 한번 환상의 호흡을 보이며 터치다운과 엑스트라 포인트를 따내 23-20으로 재역전했다. 이후 수비에 성공한 램스는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의 최종 주인이 됐다.

결승 터치다운의 주역인 와이드리시버 쿼는 슈퍼볼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쿼는 이날 8차례 패스를 받아 92야드를 전진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있었다. 박지수를 제외하면 센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세르비아, 브라질을 상대로 선전한 끝에 목표였던 월드컵 본선행에 성공했다. 브라질전에서 트리플더블을 작성한 박지수뿐 아니라 김단비, 강이슬, 박혜진 등 주력선수들의 국제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우리 대표팀에 호주전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브라질을 꺾고 본선행을 확정지은 한국은 호주를 상대로는 출전시간이 많지 않았던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다.

장기적으로 가능성 있는 젊은 선수들이 대표팀에 수혈돼야 한다는 정성민 감독의 의지가 반영됐다. 진안(26), 이소희(22), 허예은(21), 이혜란(19) 등이 20분 넘게 뛰었다. 진안은 35분여 동안 18점·7리바운드로 제 몫을 했다. 허예은, 이소희, 김혜란 등도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 등을 올리며 신체조건이 뛰어난 상대 선수들을 맞아 어느 정도 적응력을 드러냈다. 젊은 선수들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대표팀 구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